

## 2020년대 현대로맨스 웹소설, ‘불륜 복수물’의 스토리텔링 양상

- 〈멜팅 슬로우〉, 〈완벽한 결혼의 정석〉 그리고 〈내 남편과  
결혼해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중심으로\*

박찬효\*\*

1. 현대로맨스 웹소설, 막장과 전형성을 넘어
2. 불륜 복수물의 클리셰와 낭만적 사랑의 지향
3. 클리셰의 전환, 복수 스토리텔링의 변화
  - 3-1. 회귀자의 성찰, 여주인공과 조력자의 연대
  - 3-2. 로맨스에 대한 재인식과 로맨스의 지연
4. 결론

### 국문초록

2020년대에 이르러 현대로맨스 장르의 웹소설 중 ‘불륜 복수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자극적 흥미를 지향하면서 기존 막장 드라마의 설정과 연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불륜과 복수의 모티프가 포함된 〈내 남편과 결혼해줘〉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로맨스 장르의 전형화된 스토리텔링에서 벗어나, 서사의 변화 양상이 나타남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멜팅 슬로우〉와 〈완벽한 결혼의 정석〉을 중심으로 ‘상처녀’, ‘계약결혼’, ‘경쟁’ 클리셰를 살펴보았다. 이 세 클리셰는 인물의 관계 등 형상

\* 이 논문의 게재료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지원 받았음.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객원 연구원

화에 차이는 있으나, 불륜과 복수를 다룬 현대로맨스 장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가족에게 학대 받던 여주인공은 남편(애인)의 불륜을 알게 되면서 재벌가의 남성에게 계약결혼을 제안하고, 이는 복수를 성공시키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불륜과 연결된 형제자매 간 경쟁 속에서 친자 확인, 살인과 음모 등의 소재가 부각되며, 남녀주인공은 '낭만적 사랑'의 형태로 서로가 구원된다. 한편, <내 남편과 결혼해줘>(성소작)에서 여주인공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면서 피해를 당하는 인물이 생겨남을 깨닫고 '회귀자'의 윤리를 고민한다. 이 소설은 남녀주인공의 결혼과 임신을 통한 해피엔딩은 고수된다. 그러나 여주인공이 능동적으로 복수하는 과정이 부각되면서 여주인공과 조력자 간의 유대가 더욱 중요하게 형상화된다. 또한 <못 잡아먹어서 안달>(플아다)은 일반적인 불륜 복수물의 클리셰를 따르지 않는 작품이다. 여주인공이 애인의 배신을 복수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여주인공과 내연녀의 경쟁이 부재한다. 그리고 여주인공이 로맨스의 의미를 재인식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탐색하는 성장 과정이 서사화되면서 로맨스가 지연된다.

성소작과 플아다의 작품은 재벌가 남성과의 결혼, 권선징악에 입각한 사이드 복수물이라는 전형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계약결혼'이 사라지고, 여주인공-내연녀의 경쟁 클리셰를 비틀면서 로맨스의 형상화가 달라진다. 이 연구는 낭만적 사랑을 지향하는 서사를 부분적으로 비껴가면서 새로운 스토리텔링 양상이 나타난 로맨스물을 세밀하게 분석했다는 의미가 있다.

(주제어: 클리셰, 불륜, 복수, 낭만적 사랑, 여성 인물 간 유대, 로맨스의 지연, 멜팅 슬로우, 완벽한 결혼의 정석, 내 남편과 결혼해줘, 못 잡아먹어서 안달)

## 1. 현대로맨스 웹소설, 막장과 전형성을 넘어

최근, 현대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 장르의 웹소설 중 '불륜 복수물'<sup>1)</sup>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웹소설은 설정이 막장 드라마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막장 드라마는 “보통의 삶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자극적인 상황이나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는 드라마”로 대개 복수, 불륜, 감금, 구타 등 패륜적 행위가 극적 구조를 해치는 통속극으로 이야기된다.<sup>2)</sup> 예를 들어, 웹소설 <완벽한 결혼의 정석>은 입양된 딸이 친딸이고, 친딸인 줄 알았던 여성이 혈연관계가 아닌 상황, 신분 상승을 위한 살인, 치정 관계 등의 요소가 나타나는 작품이다. 등장인물은 “막장 드라마 욕할 거 없네. 현실이 더 막장이다.” 등의 대사로써 황당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애인이나 남편의 불륜에 대한 여성의 복수를 주요 소재로 다룬 최근 웹소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이 연구는 '애인이나 남편의 불륜에 대한 여성의 복수'를 다룬 웹소설을 대상으로 '불륜 복수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웹소설은 작품의 성격에 따라 '회귀 복수물', '사이다 복수물' 등의 명칭이 부여된다. '불륜 복수물'은 '회귀'와 '사이다' 요소가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여기서는 '불륜'이라는 소재를 부각하고자 했다. 김준현은 웹소설에서 '재벌물', '사이다물', '회귀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물'을 특정 '모티프'가 포함된 개념으로 설명한다. 또한 웹소설의 하위 장르를 지칭하는 장르 개념, 혹은 이전 시기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사) 장르를 지칭할 때 쓰인다(김준현, 『웹소설 장에서 사용되는 장르 연관 개념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7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127-131쪽).

2) 박숙자, 『시기심과 고통: 자기계발 서사에 나타난 감정 연구-막장드라마 <아내의 유혹>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46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7, 25쪽 각주 13.

제목	작가	전체화/이용연령/회귀물/드라마화/다운로드 수
복수는 새 남편과(2024)	사지현	93화/15세/회귀물/114만
불씨(2024)	이슈크립	90화/15세/245만
멜팅 슬로우(2023)	이른꽃	92화/15세/670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2022-2023)	플아다	157화/전체/1,249만
결혼은 당신 형과(2021)	하윤미	127화/전체/회귀물/449만
완벽한 결혼의 정석(2020)	이범배	114화/전체/회귀물/2023년 드라마화(MBN)/984만
내 남편과 결혼해줘(2020-2021)	성소작	188화/전체/회귀물/2024년 드라마화(tvN)/4,600만

〈표 1〉 불륜에 대한 복수를 다룬 현대로맨스 장르의 웹소설 현황<sup>3)</sup>

2020년대에 네이버 플랫폼의 로맨스 장르 부문에서 불륜, 이혼(이별), 결혼, 회귀<sup>4)</sup>, 복수를 서사화한 작품이 대중에게 계속적으로 주목받았다.

3) 〈표 1〉의 다운로드 수는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는 네이버 플랫폼의 현대 로맨스 장르 중 최근작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불륜과 복수’는 전세계적으로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로서, 2024년에는 결혼·이혼·복수 등을 포함한 여성향 현대로맨스 장르의 웹툰 콘터를 공모했다. <https://www.kakaocorp.com/page/detail/11093> (2024.06.30. 접속).

4) 안상원은 ‘회귀’를 “특정한 과거에 놓인 개인의 육체에 현재의 개인 의식이 침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살이나 살해당하는 등 죽음의 과정이 고통스러울수록 복수와 회복 욕구가 정당화되고, 과거의 지식이 지속적으로 현재(회귀 후)의 삶에 관여하게 된다(『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280~284쪽, 287-291쪽). 김경애는 한국 웹소설에서 회빙환이 ‘장르’로 여겨질 정도로 마스터 플롯이 돼가는 양상이 나타남을 주목한다. 회빙환은 몰입을 위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스토리 유형이자, 스테레오타입이 아니라 새로운 작품을 창출하는 진행형의 스토리 모형이다. 회귀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와 같은 로맨스에 적용돼 작품을 새롭게 한 요인이 되었다(김경애, 「회빙환과 시간 되감기 서사의 문화적 의미-웹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1호, 한국산

특히 웹소설 〈완벽한 결혼의 정석〉과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드라마화가 되었으며,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눈에 띄는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다. 회귀물로 창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멜팅 슬로우〉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은 회귀물이 아님에도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로맨스 서사에서 캐릭터, 애정 관계의 양상은 달라진다. 이주라는 오늘날 여주인공이 캔디형 신데렐라나 남자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폐형 캐릭터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하면서 단 하나뿐인 사랑을 완성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sup>5)</sup> 김예니도 현대로맨스 장르의 웹소설에서 자신의 직장 생활에 집중하고, 섹슈얼리티를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여성 인물이 등장함을 분석한다.<sup>6)</sup> 또한 현재 웹소설은 한국 로맨스물의 직접적인 전사로 여겨지는 1980년대 할리퀸, 2000년대 전후 인터넷 소설의 스토리텔링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젠더 형상화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 지평이 넓어지고, 볼거리가 산재한 상황에서 클리셰의 다양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sup>7)</sup>

문제는 불륜 복수물로 분류될 수 있는 웹소설이 자극적인 상황과 기존의 낭만적 사랑에 입각한 클리셰를 주로 형상화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중성과 더불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클리셰를 갖춘 웹소설도 함께 등장하는 점이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불륜 서사에서 여주인공과 내연녀 간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성소작의 〈내 남

---

학기술학회, 2024, 734-743쪽).

5) 이주라·진산, 『웹소설 작가를 위한 장르 가이드1, 로맨스』, 북바이북, 2021, 89쪽.

6) 김예니, 「로맨스 웹소설에 나타난 '성적 자기결정권' 재현의 특징」, 『돈암어문학』 제45집, 돈암어문학회, 2024, 87-92쪽.

7) 김예니, 「대중서사 속 '클리셰'의 변화양상-로맨스 웹소설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42집, 돈암어문학회, 2022, 21쪽.

편과 결혼해줘)에서 회귀자인 여주인공은 악인인 남편의 결혼 상대자를 내연녀로 교체해서 자신의 부정적 경험을 대신 겪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플라다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은 내연녀인 줄 알았던 여성이 여주인공 대신 복수를 수행하는 인물로 반전되면서 전형적인 클리셰를 비튼다. 두 소설 모두 여성 간 대립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sup>8)</sup>

손진원은 한국 로맨스가 남성 교화의 서사가 나타나는 할리퀸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됐지만, 점차 여성 주인공이 남성을 설득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후회남’ 로맨스에 이르러서는 나쁜 남자가 자신의 잘못을 ‘알아서’ 깨닫고 여주인공에게 절절하게 빌게 될 때, 여성이 이를 받아주게 되었다는 것이다.<sup>9)</sup> 그런데 현대로맨스 장르의 불륜 복수물에서 여성 주인공을 학대 혹은 살해한 후 새로운 애인을 선택한 남성은 교화의 대상도 될 수 없다. 후회남이 되더라도 인과응보의 논리로 처단해야 할 악인으로 설정된다. 더 나아가 <내 남편과 결혼해줘>와 <못 잡아먹어서 안달> 속 여성 인물은 복수 주체자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하거나 재벌가의 남성에게 기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과 변별된다.

즉,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내 남편과 결혼해줘>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은 불륜과 복수를 주제로 한 다른 웹소설과는 차별화된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전형성에서 벗어난

8) 성소작의 소설은 여성 인물의 형상화 측면에서 독자의 공감을 확보하며, 플라다의 소설은 새로운 서사 전개 측면에서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경우, 워킹맘의 생활에 공감하는 댓글이 달리고(27화), 불륜과 이혼의 상황을 다룬 부분에서는 “이 웹소설을 결혼하기 전 미혼 여성 필독서로 권장”(126화)한다는 댓글이 보인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의 경우, 내연녀가 복수의 주체자로 전환되는 63화에서 새로운 서사에 호응하는 독자들의 댓글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9) 손진원, 「여자들의 ‘차가운 분노’와 웹소설에서의 복수 서사」, 『여성이론』 제48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23, 137쪽.

두 작품을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장르문학은 특정 문법을 관습적으로 공유한 상태에서 작가와 독자가 함께 대화하는 일종의 놀이와 같은 문학을 말한다.<sup>10)</sup> 클리셰란 특정 장르에서 익숙하게 구조되는 캐릭터나 상황 설정 등을 의미하며, 독자에게 “아는 맛”의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 친숙한 장치”로 기능한다. 그러나 기존의 클리셰만 사용하면 낡은 이야기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창작자는 새로운 클리셰를 기존의 것과 엮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sup>11)</sup> 중요한 점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의 작가가 익숙한 클리셰를 비틀면서 차별화된 로맨스 서사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막장 및 전형화된 클리셰와 거리를 두면서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보여주는 작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비교’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2장에서는 <표 1>에 제시한 작품에 나타난 전형화된 주요 클리셰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특히 다운로드 상황을 고려해 독자에게 주목을 받은 <멜팅 슬로우>와 <완벽한 결혼의 정석>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세밀하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내 남편과 결혼해 줘>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불륜 복수물의 서사 문법을 새롭게 구조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둘째, 웹소설은 한 권 단위가 아니라 한 편 단위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된다. 그래서 인물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서사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문학 이론과는 다른 플롯이 형성된다. 예를 들어 웹소설에서 주인공의 존재성이 달라지는 회귀는 시작점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주인공의 변화보다는 독자가 기대하는 일들을 독자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해진다.<sup>12)</sup>

10) 이용희, 『웹소설 보는 법』, 도서출판 유유, 2023, 20쪽.

11) 전건우, 「오싹한 어둠의 그림자/호러」, 김선민 외 4인, 『프로의 장르 글쓰기 특강』, 와이즈맵, 2021, 186-189쪽.

그러나 성소작과 플라다의 작품은 여주인공의 존재성 변화 과정이 뚜렷하게 형상화된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발생될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복수에 승리하는 회귀자의 존재성을 보여주는 것에서 더 나아간다. 그리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은 로맨스에 대한 여주인공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지점과 함께 서사의 중심이 돼야 할 로맨스가 지연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캐릭터의 복잡성은 두 작품이 기존과는 다른 로맨스의 문법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중심으로 현대로맨스 장르 웹소설의 스토리텔링이 다양화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성소작과 플라다의 작품은 불륜과 복수를 다룬 전형화된 웹소설의 클리셰에서 벗어나 새로운 캐릭터와 플롯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대중적 재미를 지향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와 윤리에 부응하는 웹소설을 발견한다는 의미를 지닐 것이다.

## 2. 불륜 복수물의 클리셰와 낭만적 사랑의 지향

이엔 양은 1980년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미국의 막장 드라마 <델러스>의 수용 경험을 ‘조롱적 시청’으로 개념화한다. 시청자들이 <델러스>를 저급한 대중문화로 간주하면서도 재미있게 보는 현상을 ‘욕하면서 보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때 시청자들은 스토리를 과장된 극적 상황을 재현하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지하지만, 작품이 재현하는 문제가 일반적 삶의 경험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등장 인물에게는 친밀감을 갖는다.<sup>12)</sup> 불

12) 이용희, 앞의 책, 67-71쪽.

13) 윤현정, 「로맨스 웹소설을 읽는다는 것」, 이동후·최선영 외 16인, 『디지털 미디어 소



륜, 살인, 구타 그리고 이러한 설정을 소비하는 빠른 전개 등은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간주된다. 애인의 배신과 타인을 음해하는 악인의 존재성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기에 대중은 쉽게 몰입한다. <완벽한 결혼의 정석>에서 여주인공이 자신을 괴롭힌 새어머니의 추악한 모습을 들춰내자(71화), 독자는 통쾌함을 느끼면서 악인을 더 추락시켜야 한다는 댓글을 남긴다. <멜팅 슬로우>는 복수가 완료되고 주인공들이 행복해지는 마지막화(82화)에서 “소재를 보고 자극적인 신파나 아침 드라마인가 했”지만 “철저한 권선징악으로 막힘없이 시원한 전개”가 마음에 든다는 댓글도 있다. 이러한 웹소설은 막장 드라마의 요소가 잘 드러나며, 매우 높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

본 논문의 <표 1>에 제시한 작품은 모두 ‘상처녀’와 ‘재벌 남성’ 클리셰가 나타난다. 그리고 <내 남편과 결혼해줘>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제외한 작품에 ‘계약적 관계’와 불륜으로 인한 ‘경쟁’ 클리셰가 형상화되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멜팅 슬로우>와 <완벽한 결혼의 정석>을 중심으로 ‘상처녀’ ‘계약결혼’, ‘경쟁’ 클리셰를 분석하면서 불륜 복수물의 전형적 서사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최근 현대로맨스 장르에서 남주인공은 ‘능력남’, ‘다정남’ 등의 이상적 모습이 인기 키워드인 것과 대비해서 여주인공은 여러 시련을 겪은 ‘상처녀’가 대중에게 주목받았다.<sup>14)</sup> 특히 불륜 복수물에서 ‘상처녀’의 존재성은 중요하다. 독자는 주인공이 좋은 일을 했기에 호감을 갖기도 하지만, 반대로 주인공이 나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의 편이 되기도 한다.<sup>15)</sup> 예를 들

비와 젠더』,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245-246쪽.

14) 조수연·오하영은 리디북스 등의 웹소설 연재 서비스에서 키워드를 수집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다(『웹소설 키워드를 통한 이용 독자 내적 욕구 및 특성 파악』,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24권 2호, 한국정보통신학회, 2020, 164쪽).

15) 스나이더는 고양이를 구하는 일(Save the cat)을 함으로써 주인공이 대중의 호감을

어, <멜팅 슬로우>와 <완벽한 결혼의 정석>에서 여주인공들은 공통적으로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픔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운 것은 감내와 포기이며,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상처녀들은 애인(남편)과 여동생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성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이때 여주인공이 상대 남성의 배신을 깨닫는 사건은 스나이더가 말하는 ‘기폭제’<sup>16)</sup>의 기능을 한다. 기폭제와 마주하는 순간 주인공은 불행해지나, 모험이 끝난 후 그러한 상황 덕분에 행복을 찾았음을 깨닫는다.<sup>17)</sup> 기폭제는 스토리텔링에 있어 ‘전환’의 기능을 하는데, 여주인공은 더이상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 재력가와 결탁해 신분 상승을 도모한다. 이 지점에서 나타나는 클리셰가 바로 ‘계약결혼’이다.

여타 장르에 비해 다양한 이야기가 개입될 여지가 적은 웹소설의 로맨스 장르물은 결혼-파탄-복구, 이혼과 재결합 등을 통해 서사의 복잡성을 확보한다. 2010년대 후반부터 ‘계약’ 모티프를 통해 결혼은 사랑과 서사의 완성이 아니라, 서사의 발단으로 작용한다.<sup>18)</sup> 복수를 위한 ‘계약결혼’ 혹은 ‘계약적 관계’는 <표 1>에 제시한 작품 중 <내 남편과 결혼해줘>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제외하고 나타난다. 대체로 여주인공이 복수 성공을 위해 재벌가의 남주인공에게 계약적 관계를 제안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멜팅 슬로우>와 <완벽한 결혼의 정석>은 계약결혼<sup>19)</sup>이 서사화되며,

---

사는 것, 누군가가 고양이를 죽이는 일(Kill the cat)을 함으로써 대중이 주인공의 편이 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한다(블레이크 스나이더, 『Save the Cat-모든 영화 시나리오에 숨겨진 비밀』, 이태선 역, 비즈앤비즈, 2015, 366쪽).

16) 기폭제란 주인공의 삶을 뒤흔드는 누군가의 방문, 불륜 목격 등 이야기에서 처음 발생 하는 중대한 사건을 의미한다(위의 책, 19쪽).

17) 블레이크 스나이더, 『Save the Cat-홍행하는 영화 시나리오의 8가지 법칙』, 이태선 역, 비즈앤비즈, 2014, 103쪽.

18) 전성규·곽지은, 「웹소설 제목의 어휘 기호적 특징-문장형 제목의 증가와 장르 교섭의 실상 2011~2022년 웹소설 제목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국문학연구』 제7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3, 345-346쪽.

복수 주체로서 여주인공의 능동성은 차이가 있다. <멜팅 슬로우>에서 채여민은 자신을 배신한 김승재와 채나리를 처단하기 위해 재벌 기업의 적통 손주인 윤환에게 '쇼윈도 부부'를 제안한다. 그리고 윤환의 할아버지인 윤 회장의 권력으로 복수가 마무리된다. 윤 회장은 윤환과 채여민을 괴롭힌 “김정철 집안의 모든 지위와 재산이 풍비박산 나기 전까지”(82화) 집요하게 보복한다. 반면 <완벽한 결혼의 정석>에서 한이주는 신상품을 연이어서 성공시킨 능력 있는 여성으로 등장하며, 회귀 이후 복수를 실행하기 위해 인격이 변화한다. 그녀는 동생 유라가 세력과 불륜한 것에 대한 복수로, 유라가 결혼 대상으로 여기는 재벌가의 서도국에게 계약결혼을 제안한다. 그리고 계약으로써 자신을 괴롭힌 정혜와 유라 모녀를 적극적으로 몰아낸다.

그런데 <완벽한 결혼의 정석>에서 여주인공은 앞으로 발생할 일을 아는 회귀자임에도 복수를 완수하는 데 그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sup>20)</sup> 회귀는 한이주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회로 설정되며, 그녀는 재벌가의 남성을 통해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기반으로 복수를 성공시킨다. 이주는 재벌가와 혼인했기에 2회차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주목할 수 있는 또 다른 클리셰는 불륜에 의해 촉발되는 '경쟁 관계'다. 대체로 새엄마, 이복 동생, 친한 후배 등이 여주인공의 남편(애인)과 불륜

19) '계약결혼'은 로맨스 장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로맨스판타지 <루시아>(2014)에서 여주인공은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저돌적으로 남주인공과의 계약결혼을 진행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능동성을 보여준다(서은영, 「로맨스판타지 웹툰의 부상과 재현-#서로판, #영애물, #집착남물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제55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20, 109쪽, 각주 34). 그리고 현대로맨스 <선님은 결혼 생활>(2023)은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계약결혼을 한 여주인공과 기억 상실증으로 이 사실을 잊은 남주인공의 관계가 코믹하게 그려진다.

20) <완벽한 결혼의 정석>에서 한이주는 회귀 후, 앞으로 발생할 일을 아는 능력을 얻고, 친구 수진이 좋아하는 가수 이원 등을 살리는 데 활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변 에피소드는 중심 에피소드와 관련성이 적다.

관계가 된다. <표 1>의 작품을 살펴보면, <복수는 새 남편과>는 남편과 새 엄마의 불륜이, <불씨>와 <결혼은 당신 형과>는 남편(애인)과 친한 후배의 불륜이 형상화된다. <멜팅 슬로우>와 <완벽한 결혼의 정석>은 불륜에 의해 자매가 긴장 관계에 있다. 그리고 여주인공과 계약결혼을 한 남주인공은 형제와 기업의 경영권 혹은 아버지의 사랑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형제자매 간 경쟁’ 클리셰는 가족 내에서 애정과 권력을 쟁취하는 서사가 주조되면서 입양, 친자 확인, 학대, 몸싸움 등의 소재가 더욱 자극적으로 부각된다.

일반적으로 불륜 서사는 외도한 남성(남편, 애인)을 중심에 두고 본처와 내연녀가 경쟁하는 삼각관계가 첨예화되는 경향성이 있다. 그런데 웹소설은 아내나 애인을 배신한 남성이 초반부터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복수를 위해 새로 결합한 여주인공과 재벌가의 남성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남주인공은 타인에게 냉혹하더라도 여주인공에게는 다정한 이중적 면모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남주인공은 적대 세력의 음모로 인해 회사 내 입지가 좁아지거나 가족 내에서 심각한 정서적 갈등을 겪지만, 여주인공이 남성을 치유하는 구원자로 등장한다.

한편, 웹소설은 모바일로 보는 스낵컬처로서 지속적인 연재와 결제를 위해 몇 회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갈등이 주조되며, 위기와 해소의 반복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된다.<sup>21)</sup> <멜팅 슬로우>는 남녀주인공이 괴롭힘, 배신, 헛소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간 내용이 주로 전개되고, 결말에서 윤 회장이 악인을 처단함으로써 문제가 크게 해소된다. 이와 달리 <완벽한 결혼의 정석>은 ‘위기-해결’의 구조가 반복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차이는 있지만, 두 작품 모두 ‘사이다 복수물’의 전형성을 보인다.

21) 김예니, 「웹소설의 미감과 장르교섭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4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43-44쪽.

다음의 표는 주인공들이 마주한 위기와 해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멜팅 슬로우〉	〈완벽한 결혼의 정석〉
여주인공의 위기 및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애인 김승재의 배신.</li> <li>•여동생 채나리의 괴롭힘.</li> <li>•회사에서 혜승의 괴롭힘.</li> <li>•친아버지의 철저한 외면.</li> <li>•여주인공의 위기 상황을 대체로 남주인공이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편 세혁의 배신과 여동생 유라의 괴롭힘.</li> <li>•세희가 한이주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허위로 폭로(위기)/ 이주, 수진, 도나 위기 해소.</li> <li>•정혜의 경영권 쟁탈(위기)/ 이주, 수진 위기 해소.</li> </ul>
남주인공의 위기 및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부의 외면과 친모의 자살.</li> <li>•김정철의 음모.</li> <li>•미국에서 친구의 배신.</li> <li>•친부와 이복 여동생의 죽음과 죄의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복형제 정욱은 도국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자 함. 예)정욱이 이주의 음식에 약을 탐, 정욱이 이주를 납치해서 바다에 빠뜨림(위기)/도국 위기 해소.</li> </ul>
결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윤 회장이 김정철과 김승재 부자 처단(크게 위기 해소).</li> <li>•김승재와 채나리의 불행.</li> <li>•임신과 쌍방 구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욱의 감옥행.</li> <li>•정욱과 유라의 불행.</li> <li>•세희와 유라의 불행.</li> <li>•출산과 쌍방 구원.</li> </ul>

〈표 2〉 〈멜팅 슬로우〉와 〈완벽한 결혼의 정석〉, 위기-해소 내용

중심 플롯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를 성공<sup>22)</sup>시키려는 여주인공의 '위기-해소'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22) 〈완벽한 결혼의 정석〉에서 한이주는 “(중략) 여태 불합리하게 살아왔는데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필요는 없었다. 그들이 했던 것 이상으로 더럽고 치사한 수를 써서라도 제 것이었던 것들을 되찾으리라”(66화) 다짐한다. 〈멜팅 슬로우〉의 채여민은 “(중략) 그저 남에게 보이는 행복만 얻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 김승재와 채나리에게 복수만 하면 된다고.”(10화) 결심한다.

남주인공 역시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주인공의 복수 성공은 남주인공의 구원과도 관련된다. 예를 들어, 여주인공을 괴롭힌 인물과 남주인공의 복수 대상이 서로 혈연이나 결혼(연애) 관계로 묶인다. 김승재·김정철 부자와 김승재·채나리 부부(〈멜팅슬로우〉), 유라·정욱 커플(〈완벽한 결혼의 정석〉)은 남녀주인공이 처단해야 할 공동의 적이다.

또한 계약결혼 클리셰는 먼저 결혼한 후,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나가는 서사로 나아간다. 처음에 여주인공은 복수 때문에 계약을 제안한 것이기에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데 주저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남주인공의 적극적 구애로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두 작품 모두 가족 내에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남녀가 결말에 이르러 상처가 해소되고, 서로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쌍방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멜팅 슬로우〉에서 여민은 친아버지에게 철저히 외면당했고, 윤환은 부친의 배신으로 어머니가 자살했으며, 경쟁자가 만든 소문 때문에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완벽한 결혼의 정석〉에서 이주는 새어머니의 음모로 비소 중독이 돼 음식을 잘 못 먹었고, 도국은 이복형제 정욱이 일부러 밀어서 바다에 빠진 경험이 있다. 이러한 상처는 결말에서 사랑의 결실인 '출산'과 '임신'을 통해 치유된다.

그런데 위기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조력자가 연인 혹은 가족 관계로 제한되고 있다. 〈멜팅 슬로우〉에서 여주인공의 주요 조력자는 남주인공이며, 복수를 완료하는 이는 남주인공의 할아버지다. 〈완벽한 결혼의 정석〉의 여주인공은 회귀 이후 수진(도국의 사촌)과 더욱 친해지고, 연화(도국의 어머니), 도나(도국의 여동생)와 새로 인연을 맺는다. 그리고 그녀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해결한다. 그러나 이들은 도국과 혈연관계에 있으며, 여주인공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돕는다.

요컨대 이 두 작품은 낭만적 사랑<sup>23)</sup>과 연결된 가족 중심적 클리셰와 가치관이 강하게 나타난다. 가족의 정이 그리웠던 여주인공은 늘 “완벽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꿈”(〈완벽한 결혼의 정석〉, 32화)이었다. 가족에 대한 상처로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남주인공은 평생의 반려자를 찾음으로써 자녀를 가질 생각을 하게 된다(〈멜팅 슬로우〉, 82화). 또한 ‘쌍방 구원의 서사’가 남녀의 애정 관계 내에서만 강하게 구축되듯, 주인공들의 조력자도 대체로 가족 안에서 형성된다. 해피엔딩은 결혼, 임신, 스위트홈이라는 낭만적 사랑을 완성하면서 가능해진다. 이러한 경향성은 3장에서 〈내 남편과 결혼해줘〉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의 내용을 통해 대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3. 클리셰의 전환, 복수 스토리텔링의 변화

#### 3-1. 회귀자의 성찰, 여주인공과 조력자의 연대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강지원은 암에 걸렸고, 생활고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퇴원한 날 남편과 내연녀 정수민의 불륜을 목격하고, 민환의 폭력으로 죽음에 이른다. 수민은 어린시절부터 알아 온 친구이며, 음모를 꾸며 지원을 외톨이로 만든다. 그러나 ‘상처녀’였던 지원은 과거를 다시 사는 행운을 맞이하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재벌가의 남성 유지혁과 연애한다. 〈완벽한 결혼의 정석〉에서 여주인공은 회귀 경험

23) 낭만적 사랑과 로맨스에 관해서는 류수연의 논의를 참조(「여성인물의 커리어포부와 웹 로맨스 서사의 변화-로맨스판타지의 ‘악녀’ 주인공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제39집,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1, 38-42쪽).

보다 계약결혼이 복수 성공에 영향이 컸다. 반면 이 작품은 계약결혼 클리셰가 없고, 회귀자인 여주인공이 보다 능동적 주체가 돼 악인을 제압한다.

웹소설에서 회귀는 ‘미래를 아는’ 주인공의 자조(self help)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의 미래를 구축하고 돕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고 믿으며, 발생할 일을 미리 아는 지식을 활용해 자신의 우위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sup>24)</sup> 그런데 이 소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위한 복수를 실행하는 작품과는 다르다. 지원은 수민을 전남편 민환과 결혼하게 만들어, 악인에게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그대로 경험시키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인위적으로 운명을 바꿈에 따라 대신 피해를 입는 주변 인물이 생겨난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 회귀자가 조력자를 돕거나 복수의 결과를 고민하는 서사가 전개된다.

〈표 3〉은 소설에 나타난 핵심 사건과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인공이 보다 주요하게 사용한 능력(①회귀 전 (경험한 일에 대한) 지식, ②재벌가의 도움, ③여주인공의 능동성)<sup>25)</sup>을 정리한 것이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결국, 강지원은 회귀 전 경험을 활용할 때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서 복수를 실행했다고 볼 수 있다.

---

24) 안상원, 앞의 논문, 296-297쪽.

25) 〈표 3〉에 정리한 사건은 ①, ②, ③의 능력이 혼재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건 8에서도 강지원은 회귀 전에 알았던 ‘간통죄’를 떠올리면서, 동시에 양주란의 이혼을 도와 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후자가 더 중요하게 형상화되기 때문에 ‘③여주인공의 능동성’으로 서술했다.



	사건 내용(위기) (*위기 해결에 사용한 능력)	사건 결과(해소)
1	수민이 실수인 척 지원의 옷을 더럽힌 사건 역전. (①회귀 전 지식 사용)	"타인과 관련된 불행은 제삼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법칙 인지.
2	지원이 동창회에서 수모를 겪은 사건 역전. (①회귀 전 지식 사용)	친구들과의 화해. (여성 조력자를 얻음)
3	경옥이 주란의 기획안 반려한 사건 역전. (①회귀 전 지식 사용)	주란의 기획서가 프로젝트로 선정. (워킹맘 조력자 도움)
4	경옥이 희연의 아이디어 갈취한 사건 역전. (①회귀 전 지식 사용)	김경옥의 직위 하락. (젊은 여성 조력자 도움)
5	정수민 때문에 알려지가 난 손님 사건. (③지원의 능동성)	정수민의 실체 드러남, 내연녀에 대한 복수.
6	수민과 민환의 결혼식. (③지원의 능동성)	지원과 수민의 운명 교체, 복수가 일시적 완료.
7	수민이 인터넷에 허위 글 올림. (②재벌가의 도움)	민환과 수민의 위기.
8	지원이 양주란에게 이혼에 대해 조언. (③지원의 능동성)	이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주란. (지원이 조력자 도움)
9	지원의 바뀐 운명 때문에 주란이 죽을 위기. (③지원의 능동성)	지원이 주란의 생명 구함.
10	지원이 박민환의 내연녀가 돼 계약 꾸밈. (③지원의 능동성)	수민의 수감과 민환의 죽음.
11	지원의 결혼을 방해하기 위한 수민의 음모. (②재벌가의 도움)	'작은 결혼식'과 임신, 해피엔딩.

〈표 3〉 〈내 남편과 결혼해줘〉, 복수 과정에 나타난 핵심 사건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2장에서 분석한 작품처럼 '위기-해소' 사건이 배치되면서 흥미를 고조시키는 '사이다 복수물'이다. 그러나 회귀자가 복

수의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성 등 윤리적 고민을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스토리텔링 양상이 나타난다. 그 내용은 <표 3>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소설의 전반(前半)에서 강지원은 회귀로 얻은 능력을 이용하나, 계략을 적극적으로 꾸민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원은 김경옥이 벌였던 악행의 진상을 알고 있고, 잘못된 행위를 들춰내는 것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김경옥 과장은 양주란 대리의 기획안을 부당하게 반려했고(<표 3>-3), 유희연의 아이디어를 갈취했다(<표 3>-4). 지원은 이 사실을 회사의 상사가 알게 만든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누리거나, 악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는 데 주력한다.

둘째, 지원은 회귀 전 경험을 이용해 미래를 바꾸는 일을 실행할 때, 윤리적 고민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그녀는 겪었던 사건을 다시 마주하면서, “타인과 관련된 불행은 제삼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표 3>-1)는 가설을 세우게 된다. 그리고 불행했던 자신의 운명에 정수민을 넣고자 한다. 여기서 문제는 강지원이 수민과 민환을 결혼시켰으나, 양주란 대리가 지원 대신 불행을 겪는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주란은 남편 재현의 불륜 장면을 목격한 후, 남편에 의해 가벼운 뇌진탕을 겪고, 암 초기 진단까지 받는다. 지원은 주란을 구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있는 화장대를 미리 부수거나, 재현에게 주란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일어날 일은 꼭 발생한다.

그래서 지원은 이번 생에서 정수민이 대신 죽기 위해서는 자신이 민환의 내연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악녀로 전환한다. 그녀는 민환과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수민에게 그의 무정자증을 병원에서 확인하게 한다. 결국, 민환은 자신의 어머니를 쓰러지게 만든 수민에게 복수하려고 차의 브레이크를 고장냈으나 그 사실을 잊고 운

전하다 자신이 사망한다. 수민 역시 임신 문제 등으로 불편했던 시어머니를 살해하여 수감된다. 이 과정에서 지원의 운명은 수민과 교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강지원은 '회귀 전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이용해 주변 인물들을 조력자로 전환시키고, 그들과 긍정적 관계를 이루면서 복수를 성공시킨다. 회귀 이전에 강지원은 정수민의 방해로 다른 이들과 친분을 유지할 수도,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민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신을 다독이는 워킹맘 주란의 따뜻함과 마주하면서 회귀 전의 상황을 성찰하게 된다. 그리고 회귀 후 얻은 능력을 기획안을 반려 당하고 퇴직할 운명에 놓인 주란과 같은 동료들을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 지원은 경력 단절 위기에 있는 여성(양주란), 상사에게 이용당하는 젊은 여성(유희연)을 구한 후, 그녀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연결된다. 지원은 조력자와 함께하면서 정수민·박민환과 멀어져도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타의 불륜 복수물과는 다른 로맨스의 면모가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로맨스는 남녀가 연인으로 탄생하는 과정이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sup>26)</sup> 또한 남녀주인공이 함께 있는 플롯은 지향되고, 그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지양된다.<sup>27)</sup> 그런데 강지원이 회귀 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워킹맘 양주란이고, 유지혁은 그 다음에 등장한다. 양주란은 유지혁 못지않게 다수의 장면에 나타나며, 강지원이 회귀 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조력자인 유희연은 유지혁의 이복 여동생이지만, 유지혁과 가족 사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가까워진 동료다. 이 소설은 여주인공이 주변 인물과

26) 이주라·진산, 앞의 책, 21쪽.

27) 리 마이클스, 『로맨스로 스타 작가』, 김보은 역, 도서출판 다룬, 2021, 124-126쪽.

긴밀한 관계를 맺는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복수가 진행된다. 그러면서 남녀의 로맨스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멜팅 슬로우>와 <완벽한 결혼의 정석>은 여주인공이 계약결혼을 통해 내연녀보다 우월해지는 상황이 되며, 재벌가의 남성 혹은 그 가족이 복수 과정에 적극 개입한다. 반면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강지원이 유지혁 혹은 그 가족에게 도움을 크게 받은 경우는 수민이 인터넷에 지원과 지혁의 관계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올린 사건과 수민이 지원의 결혼을 방해하기 위해 지원의 어머니를 유지혁의 가족에게 등장시킨 사건 정도다 (<표 3>의 7·11).

상대적으로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남녀의 로맨스만큼 강지원과 그 주변 여성들의 유대가 부각돼 그려진다. 그 이유는 강지원이 정수민을 처단하고 그녀와 결별하는 것이 로맨스만으로는 불가능한 데 있다. 강지원의 어머니와 정수민의 아버지는 내연의 관계였다. 수민에게 지원의 어머니는 가정을 파탄 낸 장본인이자 자신을 키워줄 수 없다고 매정하게 말했던 악인이다. 그래서 그녀는 지원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비참하게 죽어서, 다시는 태어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151화)할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 애인, 남편 등 모든 것을 빼앗고자 했다. 그러나 회귀 후 지원은 애인 유지혁뿐 아니라 새로 사귀 동료들 덕분에 자신이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으며,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또 이겨낼 수 있을 거야.”(151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이 작품은 악인과 단절하기 위해서 타인과 도움의 손길로 연결돼야 함이 부각된다. 강지원은 자신이 박민환과 쉽게 결별하지 못한 이유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믿”(96화)고 잘못된 관계에 집착한 데 있음을 깨닫는다. 그러한 점에 주목해서 회귀 전, 강지원의 장례식 장면을 살펴볼 수 있다. 그곳에는 강지원의 도움을 받았거나 그녀를 애뜻하게 생각

하는 주란, 희연, 예지 등이 모인다. 그리고 저마다 자신과 지원의 관계에 대한 사연을 전한다.<sup>28)</sup> 강지원은 고립돼 살아간 여성이 아니었다. 곁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회귀 전에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회귀자였던 유지혁은 “지원이 죽은 후의 과거와, 살아난 후의 현재가 미묘하게 맞물려 있음을 깨”(108화)닫는다. 지원은 단순히 회귀를 통해 얻은 능력으로 조력자를 만든 것이 아니다. 그녀가 평소에 동료들 보살핌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이들이 생겨난 것이다.

요컨대 ‘회귀’로써 발생할 일을 사전에 아는 능력을 얻는다고 해도, 불행은 쉽게 행운으로 바뀌지 않는다. 지원이 자신의 운명을 대신 겪게 된 양주란을 돕기 위해 펼쳐지는 후반의 사건(〈표 3〉의 8·9·10)은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볼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이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여기에서 강지원을 ‘회귀의 윤리를 고민한 여성’이라고 주장한 것은 그녀가 운명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성까지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나의 불행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복수의 목표였으나, 그러한 전제의 위험성을 인지한다. 더불어 동료와 연대하면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질 때 수민과 같은 악인에게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간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권선징악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다 복수물’이라는 점에서 전형적 서사가 나타난다. 또한 여주인공이 부유한 남성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해피엔딩을 고수함으로써 낭만적 사랑을 지

28) 지원의 회귀 전 장례식(108, 109화)에 동료들이 등장해 죽은 지원을 안타깝게 여긴다. 주란은 “나 연지 낳고 휴직했을 때 지원 씨가 내 업무 거의 다 처리해 줬다고 들었어. 그게 늘 고마웠는데 이제야 인사하네. 고맙고, 정말 미안해”라고 말한다. 희연은 “나 계약직일 때 혼자 끙끙거리고 있으면 남들 모르게 가르쳐 주고 그랬죠? 엄청엄청 고마웠는데.”라며 슬픔을 고백한다. 고등학교 친구 예지 등은 수민의 거짓말로 지원과 떨어진 사건을 기억하며 마음 아파한다.

향한다. 그러나 강지원은 회귀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면서 생을 즐기  
기 위해 결혼을 유보하고(130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없”(156화)기 때  
문에 가족끼리 모여 조출한 식을 치르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전  
남편과 내연녀를 처단하는 복수의 전형성을 넘어선다는 사실이다. 여주인  
공은 회귀 전과 다르게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삶을 구성한다.  
그러한 가운데 복수 주체자인 여주인공의 능동성은 강화된다. 그리고 남  
주인공 유지혁은 지원의 마음을 보듬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조력  
자 중 한 명이 된다. 이러한 양상은 현대로맨스 장르의 불륜 복수물에서 스  
토리텔링이 다양화되는 면모라 할 수 있다.

### 3-2. 로맨스에 대한 재인식과 로맨스의 지연

휴대폰 수리 기사 한소은과 재벌가 남성 김태준의 로맨스를 담은 <못 잡  
아먹어서 안달>은 소녀가 역경을 딛고 자신의 삶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상  
처녀’ 성장물이다. 재벌가의 운전기사였던 한소은의 아버지는 김태준의  
부모를 죽이려는 김상덕의 음모로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복용하고 졸음운  
전을 한다. 부부를 사망시킨 그는 수감되고, 딸과도 만나지 못한 채 필리핀  
에서 생을 마감한다. 사건 당시 머물 곳이 없었던 7살의 소은은 태준의 집  
에 있게 되는데, 그 둘이 가까워지는 것이 싫었던 태준의 고모가 소은을 그  
녀의 이모에게 보낸다.

지금까지 독자는 여주인공이 바닥부터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  
문에, 그녀가 입양된 이가 아니라 진짜 딸이었다는 설정 등이 필요했  
다. 그래서 현대로맨스는 신데렐라 스토리로 간주되기도 했다.<sup>29)</sup> ‘상

29) 양혜석·문아름, 『스토리 꼭 그래야 할까?』, 시공사, 2022, 111쪽.

처녀'가 단시간 안에 신분이나 계층이 변화하지 않고 악행의 피해자로 남으면 독자가 이야기를 즐길 수 없다. <완벽한 결혼의 정석>과 <멜팅 슬로우>는 초반부에서 신분이 전환된다. 이주는 입양된 딸로 멸시를 받았으나 회귀 후 친자로 확인되며, 여민은 애인의 배신 뒤 재벌가의 남성과 결혼하면서 주목받는다.

그러나 최근 웹소설은 신데렐라보다는 경제적 독립과 직업적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계층의 젊은 여주인공이 다수 등장한다. <이섭의 연애>에서 강민경은 막국수집 딸로 대기업에 수석으로 입사한 뒤 승진을 위해 전력투구한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의 한소은 역시 어려운 여건에서 취준생의 꿈이었던 K그룹에 입사해 능력 있는 휴대폰 수리 기사가 된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한다.

한편, 이 소설은 여주인공을 불행하게 만든 악인 남성이 죽음에 이르고, 그의 가족이 몰락한다는 점에서 권선징악에 기반한 사이다물이다. 그런데 한소은이 애인 양희욱의 변심 이후, 재벌가 남성과의 로맨스가 시작되는 양상 정도만이 전형적 서사를 따를 뿐, 주요 클리셰가 변화되고 있다. 그 특징은 아래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72	사건1 : 한소은의 이야기	사건2 : 김태준의 이야기	클리셰의 변화
배경	소은이 애인 양희욱 어머니에게 간 공여후 배신 당함(1화).	소은 아버지의 죽음 운전으로 김태준의 부모가 사망(1화).	
복수 대상	양희욱 가족, 내연녀 최현지.		여주인공이 복수 선택 안 함.
사건 전개	소은은 헌신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음을 깨달음.	양희욱의 변심 이후 연인 관계가 된 김태준과 한소은.	계약결혼 내용 부재.
복수 주체	양희욱의 내연녀로 가장했던 최현지가 복수 주체로 전환.		여주인공과 내연녀의 경쟁 사라짐.
73-끝	사건의 확장: 김태준의 몰락을 바라는 김상덕의 음모. (사건1과 사건2의 악인(양희욱, 김상덕)이 조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은이 태준 부모의 사망 사건을 알게 되면서 로맨스 지연.</li> <li>•희욱이 태준에게 복수하려고 상덕의 음모 가담.</li> </ul>		로맨스의 지연.
사건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 회장은 소은에게 태준과의 결별을 요구하고, 소은은 해외에서 새 삶을 설계.</li> <li>•미국에서 소은을 찾은 태준이 그녀와 함께 필리핀에서 김상덕의 음모를 밝힘.</li> </ul>		로맨스의 지연과 재시작, 여주인공의 자아탐색과 여로.
사건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악인 양희욱의 죽음과 김상덕의 몰락.</li> <li>•한홍규의 유품 덕분에 사건 해결.</li> <li>•소은의 새 직업 찾기, 결혼식 없는 결혼.</li> </ul>		낭만적 사랑의 로맨스에서 일부 벗어남.

〈표 4〉 〈못 잡아먹어서 안달〉, 복수 스토리텔링 전개와 클리셰의 변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은 1화에서 복수 배경이 되는 주요 사건이 두 가지 제시되며, 각 사건은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나눠 전개된다. 전반부는 한소은이 결혼을 약속한 변호사 양희욱의 어머니에게 간 공여를 했으나, 수술



후 애인이 변심한 사건이 중심이 된다. 후반부는 한소은이 아버지의 죽음 운전으로 김태준의 부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로맨스가 불가능해진 사건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소은의 아버지는 음모에 빠진 것이며, 태준의 부모를 죽이려던 사람이 K그룹의 김상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로맨스는 다시 가능해진다.

이 소설에 나타난 클리셰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은이 희옥의 배신을 복수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계약결혼 클리셰가 없다는 것이다. 소은과 현지의 경쟁 클리셰도 이야기의 초반부에만 나타난다. 유사한 소재의 다른 작품에서 여성 간 감정 대립을 다룬 에피소드가 많았다면, 이 소설은 그러한 사건이 축소된다.

초반부에서 변호사 최현지는 한소은의 애인 양희옥을 빼앗는 내연녀로 등장한다. 그런데 그녀는 희옥과 그 가족의 악행으로 죽음에 이른 친구 강하나를 위해 양희옥의 비리를 뒷조사하는 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현지는 소은까지 양희옥 가족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인지하고, 하나와 소은을 대신해 복수를 완수한 반전 캐릭터가 된다. 양희옥에게 접근하려고 그가 다니는 로펌에 취직하고, 그의 가족이 지닌 허영심을 이용해 경제적 몰락을 유도한다. <멜팅 슬로우> 등의 여주인공은 계약결혼으로 맺은 조력자의 도움으로 복수를 성공시켰다. 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은 미국에서 부유한 부모 밑에서 안정적으로 살던 여성이 '각성'을 통해 친구의 복수를 대신하는 존재로 변화한다. 최현지는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부모의 권력을 이용하는 등 자신이 가진 수단을 기반으로 복수를 완료한다.

둘째, 여주인공 한소은은 자신이 믿어왔던 로맨스의 의미를 재인식하는 성장의 주체로 설정된다. 이 소설에서 '기폭제'가 된 사건은 양희옥과 최현지의 불륜이 의심되는 일본행이 아니다. 소은은 양희옥과 결혼하면 자신이 꿈에 그리던 안락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가족이 될 사람

들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의 어머니 김말희에게 간 공여를 했다. 그러나 우연히 양희옥이 김말희에게 한 말을 듣고, 자신이 지향했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의심하게 된다. “부모님 멀쩡히 살아 계시고 집안 좋은 애들은 우리 엄마한테 간 공여를 안 하지.”(1화)

소은이 태준과 로맨스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양희옥처럼 물질적 욕망을 상대 여성을 통해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좋아서 함께 하는 “보통의 연애”(28화)를 바라며, 태준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저도 이사님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라고 말한다. 이제 소은은 로맨스를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한다.

(가) 그가 다 가진 남자라 좋았다. 내가 줄 게 없어서, 내욕심만 채워도 되니 좋았다. (중략)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무거운 미래를 약속하지 않고, 아무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를 이용하여 행복해지려고 했다. (51화)

(나)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할 일 하면서,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내요.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중략) “(중략) 내가 미국으로 오게 된 것도 기회라고 생각해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중략) “그냥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여기는 거죠.…… 언젠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안 할 수도 있는 거고. (113화)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소은은 아버지의 죽음운전으로 김태준의 부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로맨스만으로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불가능함을 재확인하면서 결혼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난다.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행복을 지향하며,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 성장하는 삶을 선택한다. 김태준의 할아버지인 김필재 회장이 소은에게 손자와의 사랑을 그만두고 해외로 떠날 것을 부탁했을 때, 그녀는 최현지에게 비참한 상황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미국행을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여로로 만들어간다.

최근 부상하는 여성 서사는 낭만적 사랑으로부터 탈주하려고 모험을 감행하는 여성의 열망이 담겨 있다. 남성 영웅을 고양시키고 원조하는 조력자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개인을 발견하는 “자아 탐색의 로맨스를 지향한다.”<sup>30)</sup> 한소은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태준의 소은 찾기가 시작되고, 둘의 로맨스는 지연된다. 소은은 태준을 사랑했지만 그와 함께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태준은 소은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아버지가 필리핀에서 사망한 사실을 숨긴다. 소은은 태준이 자신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의 “손바닥 위”(65화)에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태준은 소은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함으로써 비능동적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반면 최현지는 소은에게 “시궁창에 처박혀도 살아남을 생각을 하라고”(102화) 직언하는 동시에 “가장 옳은 길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105화)자 한다. 소은은 낯선 미국에서 현지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녀와 같이 지내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남성 권지욱과 만나며, 지욱이 몸담은 회사인 아웃레일웨이에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본다. 소은의 미국행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여로였으며, 그녀는 로봇의 메인보드를 마주하며 경이로움을 느낀다.

한편 이 소설은 소은을 배신한 양희욱이 김태준을 몰락시키려는 김상덕

30) 이정옥, 『로맨스라는 환상』, 문학과지성사, 2022, 295쪽.

의 음모에 가담하는 사건을 주조함으로써 에피소드를 확장하고 서사의 긴장을 유지한다. 양희옥은 김태준이 자신의 가족을 몰락시켰다고 오해하여 총기 살인을 기획한다. K그룹의 김상덕은 한소은의 아버지 한홍규를 이용해 김태준의 부모를 죽이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필리핀에 남겨진 그의 유품을 훔치고자 한다. 그러나 한홍규가 남긴 녹음 내용 덕분에 김상덕의 음모가 드러난다. 마닐라를 배경으로 소은과 태준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로맨스는 범죄 스릴러와 액션이 가미되면서 전개된다. 이러한 양상은 이 작품이 외전까지 포함해서 157화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은 <멜팅 슬로우>와 <완벽한 결혼의 정석> 등에 형상화된 클리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로맨스물임에도 구원의 서사는 여성 간에도 나타난다. 최현지는 한소은의 안전과 행복을 절실하게 바라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소은은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김태준과의 사랑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된다. 현지는 소은에게서 억울하게 죽은 친구의 모습을 찾으며 안식을 얻고, 소은은 현지 덕분에 더 나은 삶을 향한다. 그래서 이 소설은 로맨스의 전형적 결말인 결혼식이나 임신 소식에서 좀 더 벗어난다. 태준은 소은에게 무엇이든 다 살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니라 그녀의 꿈을 쓸 수 있는 ‘백지’를 제시한다. 외전을 제외한 마지막화(136화)에서 소은은 미국 회사인 아웃레일웨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 파견 근무를 한다. 그리고 혼인신고 처리가 완료되면서 법적 부부가 된다.

현재 한국 대중문화에서 여성 복수극은 대체로 여성 주체의 성장과 연관되는 경향을 드러내며, 이들은 자신의 커리어 완성을 위해 연애와 결혼이라는 전통적 로맨스 장르의 예정된 결말을 유보한다.<sup>31)</sup> <못 잡아먹어서

31) 최영희·문현선, 「글로벌 K-드라마의 여성영웅 서사-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마이 네임”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제45권 8호, 한국문화융합학회,

안달)은 주인공들의 부모가 악연으로 얽힌 사연과 여주인공의 자아 탐색 여로가 나타나면서 로맨스가 지연되는 면모가 뚜렷하게 형상화된다. 그런데 최근 웹소설의 독자는 이전보다 로맨스의 성취 과정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리고 로맨스의 지연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여성의 성장담을 주요 즐거움의 요소로 수용한다.<sup>32)</sup>

이 소설은 현재의 대중이 원하는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측면도 찾아볼 수 있다. 현실에서 여성 회사원이 갑자기 미국의 기업에 취직해 자아성취를 하면서 동시에 재벌가의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소은이 미국에서 현지, 지옥, 아웃레일웨이의 CEO 등 다양한 사람과 관계 맺는 과정은 낮은 사회적 지위와 재벌의 음모로 로맨스를 지속할 수 없었던 그녀의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판타지와 연결된다.<sup>33)</sup> 그러나 그럼에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은 2020년대 이후 불륜과 복수를 다룬 현대로맨스 장르의 웹소설이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 4. 결론

<멜팅 슬로우>와 <완벽한 결혼의 정석>에서 주인공은 끊임없이 문제 상황에 직면한다. 그러나 악인은 처단되고, 새롭게 결속된 가정을 통해 해피

---

2023, 246쪽.

32) 김수아·고윤경, 「웹소설에 재현된 낭만적 사랑-웹소설 수용자 인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9권 1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4, 226쪽.

33) 이주라는 장르 클리셰를 벗어나고자 하는 로맨스의 주인공이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판타지가 현재 우리 사회 주체들의 결핍 및 욕망과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한다(이주라, 『소녀 취향 성장기』, 산지니, 2024, 95쪽).

엔딩이 실현되면서 독자는 대리만족을 한다.<sup>34)</sup> 그런데 자극적, 전형적 설정만을 고수한다면, 그 미래는 긍정적일 수 없다. 본 연구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로맨스 장르의 클리셰를 비틀어 새로운 이야기를 주조하는 측면에 주목했다.

2장에서는 <벨팅 슬로우>와 <완벽한 결혼의 정석>을 중심으로 ‘상치녀’, ‘계약결혼’, 불륜으로 촉발되는 ‘경쟁’ 클리셰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세 클리셰는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불륜과 복수를 다룬 현대로맨스 장르에서 전형적 형태로 광범위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상처녀인 여주인공은 애인의 불륜을 마주하면서 재벌가의 남성에게 계약결혼을 제안한다. 여주인공은 권력 있는 재력 가문에 속하게 되었기에 자신의 애인을 빼앗은 여동생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복수는 쉽게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두 작품은 가족 간의 경쟁 속에서 친자 확인, 학대, 몸싸움 등의 소재가 부각된다. 주목할 점은 공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남녀가 서로 구원되는 서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낭만적 사랑과 연결된 가족 중심적 클리셰와 가치관이 강하게 드러나며, ‘출산’과 ‘임신’을 통한 해피엔딩을 맞이한다.

3장에서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불륜 복수물의 전형적 클리셰를 비틀거나 벗어나면서 새로운 서사가 나타남을 살펴 보았다. 두 작품 모두 ‘상치녀’가 등장하나, ‘계약결혼’ 클리셰는 없다. 여주인공과 내연녀의 경쟁 클리셰 및 로맨스에 대한 지향성도 변화한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성소작)에서 회귀자인 여주인공 강지원은 내연녀 수민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대신 수민을 전남편과 결혼시키는 방식으로 복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운명을 바꾸자 피해를 입는 인물이 생

34) 이연 앙, 『〈델러스〉 보기의 즐거움』, 박지훈 역, 나남, 2018, 200-201쪽 내용 참조 서술.

겨나고, 지원은 회귀자의 윤리를 고민한다. 발생될 일을 아는 능력은 조력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도 사용하며, 악인이 자신의 잘못을 통해 저절로 몰락하는 상황을 지향한다. 이 소설은 낭만적 사랑에 입각한 해피엔딩이 고수된다. 그러나 복수 과정을 고민하는 회귀자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여성 인물 간 유대가 보다 강조되는 스토리텔링 양상이 나타난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플아다)은 여주인공 한소은이 애인의 배신에 복수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결혼 클리셰가 없다. 그리고 내연녀였던 최현지가 복수를 실행하는 주체이자, 소은의 조력자가 되는 새로운 서사가 나타난다. 또한 여주인공이 로맨스의 의미를 재인식하는 성장의 주체로 형상화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탐색하는 여로가 부각되면서 로맨스가 지연된다. 외전을 제외한 마지막화에서 남녀주인공은 혼인신고로써 법적 부부가 되고, 여주인공은 미국 회사의 한국 파견 근무가 확정되면서 이야기는 끝난다.

성소작과 플아다의 작품은 재벌가 남성과의 결혼, 권선징악의 구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다 복수물이라는 전형성은 나타난다. 그러나 여주인공과 내연녀의 경쟁 클리셰 변화, 복수를 수행하는 여주인공의 능동성 강화, 여주인공과 조력자 간 연대 부각, 로맨스에 대한 가치관의 전환 등으로 막장 드라마와 좀 더 떨어진 서사가 구조된다. 이 연구는 현대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 장르의 작품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웹소설 서사의 다양화 양상을 고찰했다는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성소작, 『내 남편과 결혼해줘』, 2020-2021.  
이범배, 『완벽한 결혼의 정석』, 2020.  
플아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 2022-2023.  
이른꽃, 『멜팅 슬로우』, 2023.

### 2. 논문과 단행본

- 김경애, 「회빙환과 시간 되감기 서사의 문화적 의미-웹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1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4, 734-743쪽.
- 김수아·고윤경, 「웹소설에 재현된 낭만적 사랑-웹소설 수용자 인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9권1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4, 189-231쪽.
- 김예니, 「웹소설의 미감과 장르교섭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4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37-56쪽.
- 김예니, 「대중서사 속 '클리셰'의 변화양상-로맨스 웹소설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42집, 돈암어문학회, 2022, 7-35쪽.
- 김예니, 「로맨스 웹소설에 나타난 '성적 자기결정권' 재현의 특징」, 『돈암어문학』 제45집, 돈암어문학회, 2024, 69-98쪽.
- 김준현, 「웹소설 장에서 사용되는 장르 연관 개념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7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107-137쪽.
- 류수연, 「여성인물의 커리어포부와 웹 로맨스 서사의 변화-로맨스판타지의 '악녀' 주인공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제39집,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1, 35-58쪽.
- 박숙자, 「시기심과 고통: 자기계발 서사에 나타난 감정 연구-막장드라마 〈아내의 유혹〉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46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7, 21-42쪽.



- 서은영, 「로맨스판타지 웹툰의 부상과 재현-#서로판, #영애물, #집착남물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제55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20, 93-113쪽.
- 손진원, 「여자들의 '차가운 분노'와 웹소설에서의 복수 서사」, 『여성이론』 제48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23, 133-142쪽.
-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279-307쪽.
- 양혜석·문아름, 『스토리 꼭 그래야 할까?』, 시공사, 2022.
- 윤현정, 「로맨스 웹소설을 읽는다는 것」, 이동후·최선영 외 16인, 『디지털 미디어 소비와 젠더』,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 이용희, 『웹소설 보는 법』, 도서출판 유유, 2023.
- 이정옥, 『로맨스라는 환상』, 문학과지성사, 2022.
- 이주라, 『소녀 취향 성장기』, 산지니, 2024.
- 이주라·진산, 『웹소설 작가를 위한 장르 가이드1, 로맨스』, 북바이북, 2021.
- 전건우, 「오싹한 어둠의 그림자/호러」, 김선민 외 4인, 『프로의 장르 글쓰기 특강』, 와이즈맵, 2021.
- 전성규·곽지은, 「웹소설 제목의 어휘 기호적 특징-문장형 제목의 증가와 장르 교섭의 실상 2011~2022년 웹소설 제목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국문학연구』 제7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3, 323-375쪽.
- 조수연·오하영, 「웹소설 키워드를 통한 이용 독자 내적 욕구 및 특성 파악」,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24권 2호, 한국정보통신학회, 2020, 158-165쪽.
- 조소연,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에 나타난 젠더 재현 양상과 그 의미」, 『대중서사연구』 제30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4, 433-464쪽.
- 최영희·문현선, 「글로벌 K-드라마의 여성영웅 서사-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마이 네임”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제45권 8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241-252쪽.
- Blake Snyder, 『Save the Cat-홍행하는 영화 시나리오의 8가지 법칙』, 이태선 역, 비즈앤비즈, 2014.
- Blake Snyder, 『Save the Cat-모든 영화 시나리오에 숨겨진 비밀』, 이태선 역, 비즈앤비즈, 2015.

316 대중서사연구 제30권 3호

Ien Ang, 『〈델러스〉 보기의 즐거움』, 박지훈 역, 나남, 2018.

Leigh Michaels, 『로맨스로 스타 작가』, 김보은 역, 도서출판 다른, 2021.

### 3. 기타자료

2024년 현대로맨스 장르 웹툰 콘티 공모전,

<https://www.kakaocorp.com/page/detail/11093> (2024.06.30. 접속).

## Abstract

### Storytelling Aspects of 'Narratives of Affair and Revenge', a Contemporary Romance Web Novel in the 2020s-Focusing on <Melting Slow>, <The Perfect Marriage>, <Marry My Husband> and <I Can't Eat It, So I'm Impatient>

Park, Chan-Hyo(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2020s, 'narratives of affair and revenge' is gaining popularity among web novels in the contemporary romance genre. However, most of them are related to the settings of existing soap opera while aiming for stimulating inter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versification of the narratives in <Marry My Husband> and <I Can't Eat It, So I'm Impatient>, which contain the motifs of affair and revenge, and break away from the typical storytelling of the romance genre.

First, we examined the clichés of 'wounded woman', 'contract marriage' and 'competition', focusing on <Melting Slow> and <The Perfect Marriage>. These three clichés are widely found in the contemporary romance genre that deals with affair and revenge,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visualiz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The female protagonist, who was abused by her family, proposes a contract marriage to a man from a wealthy family when she finds out about her lover's affair, and this becomes a means of successfully taking revenge. And in the midst of the sibling rivalry connected to affair, themes such as paternity, murder, and conspiracy are highlighted, and the male and female protagonists are saved in the form of 'romantic love'. On the other hand, in <Marry My Husband> (Seong So-jak), the female protagonist realizes that there are people who are harmed as she changes her fate, and ponders the ethics of a 'being that went back in time'. This novel maintains the happy ending through the

marriage and pregnancy of the male and female protagonists. However, as the process of the female protagonist actively taking revenge is highlighted, the bond between the female protagonist and her helper is more importantly depicted. On the other hand, <I Can't Eat It, So I'm Impatient> (Plaada) is a work that does not follow the clichés of typical affair revenge stories. Since the female protagonist does not respond to her lover's betrayal with revenge, there is no competition between the female protagonist and lover's mistress. And as the female protagonist re-recognizes the meaning of romance and the growth process of exploring what she wants is narrated, the romance is delayed.

The works of Seong So-jak and Plaada have the typicality of a cider revenge story based on marriage with a chaebol man and the punishment of evil. However, the 'contract marriage' disappears, and the cliché of the competition between the female protagonist and lover's mistress is twisted, changing the form of romanc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analyzed in detail a romance story that partially deviates from the existing narrative that pursued romantic love and shows a new storytelling style.

**(Keywords: cliché, affair, revenge, romantic love, bonds between female characters, delayed romance, Melting Slow, The Perfect Marriage, Marry My Husband, I Can't Eat it, So I'm Impatient)**

논문투고일 : 2024년 9월 7일  
논문심사일 : 2024년 10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4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4년 10월 18일